스포츠

2019년 10월 11·12일 주말판

*스로*초동아

아시아★→KCC서음주차사고→3년재활→DB행

미친 재능 꿈틀대는 김민구 "이젠 행복한 농구 하고싶다"



2013년 필리핀 마 닐라에서 열렸던 국 제농구연맹(FIBA) 아 시아선수권대회. 농 구 팬들은 새로운 스 타 탄생에 환호했다. 주인공은 당시 경희 대 재학 중이던 김민

구(28·원주 DB). 한국 은 필리핀과의 4강전에서 79-86으로 패했지 만, 27점을 쏟아 부은 그의 활약은 강한 인상 을 남겼다. 대회 베스트5에 선정된 김민구는 '제2의 허재'라는 평가까지 받았다. 슛. 드리 블, 패스에 스피드까지 겸비한 테크니션이었 다. 천부적인 농구센스는 그이말로 '미친 재 능'이었다.

2013 KBL 드래프트 2순위로 전주 KCC 유 니폼을 입은 김민구는 기대와 달리 프로농구 무대에서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 다. 2014년 여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 기 때문이다. 음주운전 자체로 사회적인 물 의를 일으킨 동시에 이 사고로 골반 뼈가 부 러져 몇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다.

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.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다. 3년간의 재활 끝에 코트에 섰지만, 10~15분 내외를 뛰는 벤치워머가 그의 자리였다.

김민구는 지난 여름 자유계약선수(FA) 자 격을 얻어 시장에 나왔지만 반응이 싸늘했 다. 원소속구단 KCC와 재협상 끝에 최소 연 봉인 3500만 원(계약기간1년)에 도장을 찍은 뒤사인&트레이드를 통해 DB로 이적했다.

DB로 이적을 원한 이유는 단 하나, 행복하 기 위해서였다. 김민구는 "내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, KCC에서는 출전기회 가주어지지 않았다. 나도 곧 서른이 된다. 한 살이라도 나이가 들기 전에 뛸 수 있는 팀에 가고싶었다"고말했다.

DB 이상범 감독(50)은 연습경기 때부터 김 민구를 팀의 핵심 자원 중 한명으로 중용하 고 있다. 그는 9일 안양 KGC와의 원정경기 에서는 승부처인 4쿼터 2개의 3점슛을 성공 시키면서 팀 승리(86-81)에 공헌했다.

김민구는 "과거의 일(음주운전 교통사고) 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 서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다. 늘 마음 한구 석이 무겁다. 재활하는 동안 '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'라며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다. 그래 도나를 믿어준가족, 친구, 팬들을 생각하며 재활을 해왔다"며 과거를 회상했다. 이어 "최소연봉으로 계약을 했지만, 지금 내게 돈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는 것이다. 친구인 (김)종규와 한 팀에서 신나고 행복하게 뛰고 있다. 재활을 하는 동안 부모 님의 마음고생이 컸다. 아마 지금 모습을 보 면 부모님도 행복해하고 계실 것 같다. 아직 부족하지만, 경기를 치를수록 더 나아질 것 이다"라며 미소를 지었다.

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| 6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



'하나원큐 2019~2020 여자프로농구'가 1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 미디어데이를 열고 대장정의 출발을 알렸다. 우리은행 위성우, 삼성생명 임근배, 신한은행 정상일, BNK 썸 유영주, KEB하나은행 이훈재, KB스타즈 안덕수 감독(아랫줄 왼쪽부터)과 6개 구단 대표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가운데 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.

대권파·봄 농구파 '감독들의 동상이몽'



'하나원큐 2019~ 2020 여자프로농구' 가 1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 미디어데이를

개최했다. 6개 구단 감독과 구단별 대표 선수 1명 등 총 12명이 미디어데이에 참 석해 새 시즌 목표와 각오를 밝혔다. 지 난 시즌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청주 KB 스타즈가 '수성'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5개 팀 감독들은 우승과 플레이오프(P O) 진출을 의미하는 '봄 농구'를 향한 의 지를 보였다. 여자프로농구는 19일 부천 KEB하나은행과 부산 BNK 썸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.

●공통된 목표 우승&PO

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용인 삼성생 명의 임근배 감독은 "무조건 챔피언결정 전에 진출해서 기필코 우승을 해보겠다. 팀 역사상으로도 정상을 차지한 게 너무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 "기필코 우승" 우리銀 위성우 감독 "정상탈환 최선" KB스타즈 안덕수 감독 2연패 야망 신한·BNK·KEB는 봄 농구 1차 목표

오래됐다"고 확고한 지향점을 공개했다.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올 랐지만 KB스타즈에게 우승컵을 내줬다.

통합 6연패를 달성하다 지난 시즌 한 템포 쉰 아산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"이번 시즌에 우승을 목표할 수 있는 입 장은 아니라고 본다. 그러나 최선을 다 해 탈환하는 시즌을 보내려 생각하고 있 다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해보겠 다"고 말했다.

지난 시즌 PO에 진출하지 못한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, BNK 유영주 감 독. KEB하나은행 이훈재 감독은 나란히 1차 목표를 '봄 농구'로 설정했다. 정 감

독은 "전문가들이 뽑은 우리 팀의 예상 순위가 6위라고 들었는데 자존심 상한 다. 목표를 크게 갖겠다. 1차는 PO, 2차 며속내를 드러냈다. 는 우승이다. 드라마틱한 경기력으로 목 표를 이뤄내겠다"고 강조했다. 유 감독 은 "우리 선수들이 6개 구단 중 가장 어 리다. 패기를 앞세워 싸우면 봄 농구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"고 전망했다. 이 감독은 "상무 감독으로 있다가 여자프로 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큰 부 분이 도전이었다. 우리 선수들도 봄 농 구를 향해 도전하며 많이 준비했다. 꼭 이뤄보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

지난 시즌 우승반지를 손에 넣은 KB 스타즈 안덕수 감독은 "첫 번째는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리그를 치르고 싶다. 두 번째 는 항상 우승을 못한 상황에서 우승하고 싶었던 초심을 되찾는 것이다. 끈끈함과 동료애를 가지고 시즌에 임하겠다"고 말 을 아꼈다. 안 감독은 최대한 조심스럽

게 인터뷰에 응했지만 미디어데이가 진 행되는 중간 "솔직한 마음은 우승"이라

●변수로 떠오른 대표팀 차출과 부상

WKBL은 2022도쿄올림픽 예선전을 고려해 이번 시즌을 팀 당 35경기에서 30경기로 축소해 운영한다. 11월과 2월 대표팀 차출에 따른 휴식기를 갖는다. 그로 인한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.

각 팀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 합류로 중 간에 팀을 떠나야 하고, 부상 변수가 발 생할 수도 있어서다. 감독과 선수들 모 두 대표팀 차출이 리그 성적 등 소속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. KEB 하나은행 강이슬은 "시즌 중에 대표팀으 로 빠져야 해 몸 관리, 부상 등이 걱정된 다. 하지만 이번이 올림픽 본선에 나갈 좋은 기회라고 들었다. 열심히 해서 올 림픽 본선에 꼭 가보고 싶다"고 말했다.

최용석 기자 gtyong@donga.com

스윗맨 이훈재·댄싱머신 정상일·종아리 미남 임근배···

선수들이 뽑은 '우리 감독님의 매력'

위성우·안덕수'호통·화통' 유영주 감독엔 "잘 생겼다"

WKBL이 10일 '하나원큐 2019~2020 여자프로농구' 개막 미디어데이를 열었 다. WKBL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6개 팀 선수들에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

실시했고. 그 결과를 미디어데이 중간 중 간에 소개했다. '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한 팀', '이번 시즌 눈여겨봐야 할 선 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. 수' 등 농구적인 요소 외에도 '각 팀 선수 들이 뽑은 해당 팀 감독의 매력 포인트'에 관한 설문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. 재치 있 고. 솔직한 대답이 쏟아졌다.

부천 KEB하나은행의 지휘봉을 새롭 게 잡은 이훈재 감독을 표현한 단어 중에 '스윗'이 2번이나 나왔다. '스윗(sweet)' 이라는 표현은 '귀엽다' 정도로 해석이 수가 있는 듯 했다.

가능할 듯 하다. A선수는 "스윗하고 유머 스럽다"고 했다. B선수는 "쏘(so) 스윗"

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을 향한 선수 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다. 그 가운데에 서도 '재밌다', '웃음이 많으시다' 등 평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주 등 장했다. 가장 눈에 띄는 대답 중 하나는 '댄싱머신'이었다. 춤 솜씨를 확인한 선

경기장에서도 열정 넘치는 모습을 자 주보이고, 목소리가 크기로 정평이 난 아 산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과 청주 KB스타 즈 안덕수 감독에게는 '호통', '화통'이라 는 단어가 보였다.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 의 자상함 때문인지 '알고 보면 여린 남 자', '귀여움' 등을 선택한 선수들도 있었

용인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에게는 "잘 빠진 종아리가 매력", "꽃미남"이라는 다 소 의외의 얘기가 등장한 가운데 부산 B NK 썸 유영주 감독에게도 "잘 생겼다", "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몸매" 등 외 모평가가 덧붙여졌다. 최용석 기자

서울 달리기대회 13일 오전 8시 스타트 …출발지 세종대로 오전 6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

마라톤구간 9시45분까지 통제 로고 새겨진 기능성 티셔츠 제공



또 하나의 명품 달리기대회가 서 울의 가을을 뜨겁 게 달군다. 13일 오 전 8시 서울광장에 서 스타트 총성이

울릴 2019 서울달리기대회(서울시·동 아일보·스포츠동아 공동 주최)다.

10km와 하프코스로 나뉘어 1만여 명 의 달림이들이 출전할 이번 대회는 서울

도심과 청계천, 한강을 달리는 국내 유 일의 무대다. 2030 참가자 비중이 크게 늘었고, 90세 어르신부터 6세 어린이까 울 시내 교통이 탄력적으로 통제된다.

지 연령층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. 나 달리기로 기록을 측정하고 순위를 매 기는 종목(육상·트라이애슬론·근대5종 등)의 현역 등록선수는 참가 가능해도 시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. 기념품은 일 부 바뀌었다. 마라톤 등 러닝 스포츠에 맞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외선을 차 단해주는 기능성 티셔츠가 모든 참가자 들에게 사이즈별로 지급된다. 티셔츠에 는 '2019 SEOUL RACE' 문구와 대회

로고가 새겨져 있다.

대회 당일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 출발지인 세종대로(서울시청 앞~세종 참가 제한은 크게 두지 않는다. 그러 대로 사거리)와 도착지인 무교로 구간 (시청 삼거리~모전교)이 오전 6시30분 부터 10시10분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되 며 종로~율곡로~청계천로~동호로~ 을지로~남대문로~청계천로 등 주요 마라톤 구간은 오전 7시50분부터 9시 45분까지 차례대로 통제된다. 또 교통경 찰과 모범운전사 등 480여 명이 코스 곳 곳에 배치돼 대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지원한다. 남장현기자 yoshike3@donga.com



지난해 열린 서울달리기대회

주최: 🏕 서울특별시 🛞 東亞日報 🔑 🕏 조동아 협찬: 🔷 우리은행 🖊 toto 🔊 하이원 리조트 후원: 🝪 서울특별시체육회

주관: SDO< eX< COM